

산타 마리아 재단, 70 주년 경축



2026년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산타 마리아 재단은 인도네시아 내 노틀담 수녀회의 교육 사도직이 시작된 곳인 푸르발링가에서 창립 70 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이번 기념행사는 네덜란드에서 온 선교사 수녀들이 개척한 변함없는 사명에 경의를 표하는 자리였습니다.

“가치에 뿌리내리고, 배움을 통해 성장하며, 타인을 위해 열매를 맺는다”라는 주제로 뭉친 산타 마리아 재단 가족 - 아홉 개의 교육 기관을 관장하는 - 은 감사의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세미나, 역사 성찰, 공연, 공동 활동 등을 통해 재단이 지역 공동체에 미친 지속적인 영향력을 조명했습니다.

핸디 크리스티안 아디푸트라 신부가 집전한 감사 미사가 이번 기념행사의 핵심이었습니다. 신부는 강론에서 재단의 70년 성장에 대한 감사와, 사제로 활동하는 동문들 및 많은 이에게 축복이 되는 일상 속 사랑의 실천을 통해 드러난 교육 사명의 지속적인 결실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미사 중에는 새로 지어진 강당과 기숙사를 축복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인 마리아 엘프리다 수녀, SND는 이 시설들이 산타 마리아가 학문적으로 뛰어난 것은 물론, 지혜롭고 가치관을 갖춘 세대를 양성하여 교회와 지역 사회 모두에 봉사하겠다는 약속을 뒷받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념행사는 노틀담 수녀회가 남긴 유산을 되새기고, 노틀담의 상징인 타인을 섬기고 인격을 함양하는 데 투신하며 그리스도교적 가치에 뿌리를 둔 교육에 대한 재단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